

해외출장 보고서

I. 출장 개요

○ 출장 건명 :

- 2012시베리아 남북러 협력 경제포럼 참석 및 토론,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농업 및 물류 현황 조사

○ 출장 목적 :

- 한겨레신문사 평화연구소가 주최하는 “2012 극동 시베리아 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토론하고 학술교류 활동을 수행함.
- 남북러 경제 및 농업협력과 관련, 극동 시베리아의 자원 및 물류 실태를 조사하고 답사함.

○ 출장 국가 및 주요 방문지 :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하바로프스크, 치타, 울란우데 경유)

○ 출장 기간 : 2012. 8. 21(화) ~ 8. 28(화)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급	성명
글로벌협력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김영훈

II. 출장 조사 주요 내용

- 한겨레 평화연구소가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개최한 “남북러 협력 경제포럼”의 “극동의 변화와 한반도” 세션에 참석하여 농업부문에서의 남북러 협력 방향에 관해 토론하고,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러 경제협력 동향과 발전 가능성을 파악함.

- 블라디보스톡-이르쿠츠크 간 열차물류 답사 과정에서 극동 시베리아의 TSR 물류 실태를 답사함.
- 극동지역(하바로프스크, 울란우데)에 거주하는 고려인 면담을 통해 농업 및 남북러 경협 참여 실태를 조사함.
- 러시아의 최근 극동 시베리아 정책을 조사함.

※ 세부 내용은 별지 참조

(별지)

주요 출장 결과

1. 주요 일정

주요 일정			비고
8.21 (화)	09:50-14:30 18:30	○ 이동(인천 출발 - 블라디보스톡 도착) ○ 열차 탑승(블라디보스톡 출발)	대한항공
8.22 (수)	11:00 12:00-13:30 16:00-18:00	○ 하바로프스크 도착 ○ 하바로프스크 고려인농업경영자 간담회 - 러시아 고려인들의 농업경영 상황 ○ 열차 좌담회 - 극동 시베리아의 자연과 문화	Paul Lee 7-909-807-1287 곽병찬(논설위원) 외 8인
8.23 -24 (목,금)	16:00-18:00 (목) 18:00	○ 열차 이동 (하바로프스크-치타-울란우데-이르쿠츠크) ○ 열차 좌담회 참석 - 남북한 농업협력과 해외농업개발협력 ○ 이르쿠츠크 도착	김영훈외 8인
8.25 (토)	10:00-13:00 15:00-17:00	○ “시베리아 남북러 경제포럼” 참석, 토론 - 이르쿠츠크 메리어트 호텔 ○ 국립 이르쿠츠크 대학 방문 - 이르쿠츠크 국립대학교수 면담	포럼참석자 Alexey Peterov 7-9025-192178
8.26 (일)	11:00-17:00	○ 이르쿠츠크 현지 농업현장 답사	포럼참석자
8.27 (월)	09:00-14:00 17:00-19:00	○ 이르쿠츠크 현지 농업현장 답사 ○ 이르쿠츠크 고려인협회장 면담 - 구소련 개혁개방시 국유재산 사유화 방식	포럼참석자 Nikolay Lee 8-914-917-9654
8.28 (화)	03:30-06:30	○ 이동(이르쿠츠크 출발 - 인천 도착)	대한항공

2. 주요 출장 내용

가. 국제학술세미나(포럼)

1) 개요

○ 개최 목적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의 자원 및 물류는 한반도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 극동 시베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변화와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살펴봄.

○ 일시 및 장소 : 2012년 8월 25일, 러시아 이르쿠츠크 메리어트 호텔

○ 주최 및 주관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겨레평화연구소

2) 발표 및 토론

○ 대주제 : 극동 시베리아의 변화와 한반도의 대응

○ 제1세션 : 극동의 변화와 한반도

- 발제1 : 푸틴 시대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 정책의 변화
알렉세이 페테로프, 이르쿠츠크 국립대학 교수
- 발제2 :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과 남북한 협력
송정호, 우석대 교수
- 토론 :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2세션 : 한국의 시베리아 물류 진출과 가능성

- 발제1 : 대륙 경쟁력 함양과 차기 정부의 물류정책
양원, 목포대 교수
- 발제2 : 남북러 가스관 및 극동 러시아 진출과 한반도 철도 구상
신동호, 코레일 해외사업단
- 토론 : 서종원, 교통연구원 연구위원

3) 학술 세미나 결과

○ 2012년 9월 3일자 29면에 보도

한겨레

2012년 09월 03일 월요일 029면 기획/특집

“남북철도 연결, 북한경제의 중국 종속 막을 유력한 방법”

한겨레평화연구소 주최
시베리아 남-북-러 포럼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을 막으려면 남북 철도 연결이 시급하다’ 한겨레평화연구소가 8월25일 주최한 ‘제2회 시베리아 남-북-러 경제포럼’ 참석자들은 남북한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가 남북 화해를 이끌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을 막는 유력한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 페스트로이가 초기와 비슷
중국 의존 피하려 미·러 접촉할듯
남북철도로 시베리아 공동진출엔
한반도 평화 물꼬 틀 원동력 전망

시베리아의 핵심 도시인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북한과 중국이 8월14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경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겨레평화연구소가 8월 21-28일 진행한 ‘민족의 시원 바이칼을 향한 평화 대장정’ 행사의 하나로 치러졌다. 총 70여명이 참여한 평화대장정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르쿠츠크까지 총 72시간 동안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탄 뒤, 시베리아 개발 참여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우선 시베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개발 의지가 매우 높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자인 알렉세이 빅토로비치 페트로프 교수(이르쿠츠크국립대 역사학과 부학장)는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0년 7월 발표된 ‘시베



제2회 시베리아 남-북-러 경제포럼 참석자들이 남북의 시베리아 공동진출 가능성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흥원 한국고령연구원 연구위원, 신동호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단 과장, 장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정호 우석대 교수, 박형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송정호 교수, 페트로프 이르쿠츠크 국립대 교수, 이명환 이르쿠츠크 고려인 문화센터 설립자, 장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리아의 사회경제개발 2020’을 꼽았다. 자원개발 등을 통해 시베리아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계획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21년에는 지역총생산 1.6배, 산업생산은 1.45-1.59배, 임금 및 1인당 소득은 1.8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연히 국외로부터도 많은 투자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새 정부 내각에서 시베리아 개발 등을 담당하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송정호 우석대 교수(북한정치·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시베리아가 주요한 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현재 북한의 모습이 ‘초연 시절 개혁개방의 신평탄이 쏘인 페스트로이가 초기 단계와 상당히 닮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이 보이는 여러 개혁개방 징후와 함께 김정일은 노동당 제비서의 지휘에서 유추할 수 있다. 송 교수는 김정일 제비서가 우게자가 됐지만, 모든 것을 최종결정했던 김일성, 김정일식 ‘수령’의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따라서 김 제비서가 인민들의 경제 개선 목소리에 귀기울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대미, 대중 관계에 우선 힘을 쏟겠지만, 중국 편중 등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도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동호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단 과장은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시베리아 가스관 북한 통과 사업이 남북경제 협력의 주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과장은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2007년 12월11일 경의선을 연결 운영했지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이 2008년 12-1조지로 중단시킨 상태다. 신 과장은 철도 연결사업 재개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물꼬를 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북한 철도 개건, 남북한의 시베리아 공동 진출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미 2011년 10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역을 시범 연결하는 등 북한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페트로프 교수는 “러시아 정부는 남과 북이 시베리아 진출과 관련해 어떤 협의를 하든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는 현재 남한과는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북한과는 노동력 활용에 초점을 맞춰 협력을 진행하

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한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의 협력만 있다면 모든 영역에서 남-북-러 삼각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원 목포대 교수(물류·해운)는 “지금은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도 시베리아 개발을 통해 북한의 땅들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종원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베리아 진출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개발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도 갖추어졌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르쿠츠크/글·사진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twe27@hani.co.kr

○ 별첨 자료로, 학술포럼 주제발표 자료집이 있음.

나. 한국인과 고려인들의 러시아 농업경영

(Poul Lee, 하바로프스크 거주 고려인)

1) 연해주 농업개발

(1) 최초의 연해주 농업 개발 투자

○ 1991-1992년 대륙연구소(장덕진)가 크레모브농장에서 시험적인 영농으로 콩과 밀 보리 귀리를 계약재배 형태로 투자.

○ 그 후 1994년 고합에서 순야센과 크레모브 농장에서 콩과 맥류를 재배하였음. 1997년까지 운영하다 모기업인 고합그룹의 재정악화와

부도를 맞이하여 실패함.

- 51%의 지분을 획득하고 현금으로 미화 200만 달러를 투자
- 한국측이 경영함으로써 그 후 러시아 농장과 농업을 파악하는데 많은 교훈을 줌.

(2) 연해주 영농투자사업의 전개

- 그 이후 영농에 관하여 한일그룹, 세모그룹 남양알로에, 대경 등 민간기업과 새마을중앙회, 농촌지도자중앙회, 기타 농민단체들도 관심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참여함.
- 1996년 고향에서는 생산한 콩을 한국으로 반입
- 1997년 위탁영농을 통해 생산한 농작물을 북한으로 보내고 이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북지원도 추진함(총 6300톤의 벼 지원)
- 2002년에는 대순진리회에서 ‘아누치노’군 소재 ‘젼추쥐나’ 농장을 인수하여 직영을 시작함.
 - 대순진리회는 4개 군에 걸쳐 9개의 농장을 인수
 - 2004년 6,000ha, 2005년 12,000ha 영농 실시
 - 대형 콤바인, 트랙터, 트럭, 파종기, 농약 살포기 등 장비구매와 곡물창고, 기계 수리소, 저유소, 건조장, 정선장을 수리, 보수하는데 추가투자를 추진함.

(3) 연해주 농업투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조건

- 자산소유권과 경영권의 완전한 확보
 - 외국회사나 개인은 농지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지만 임대를 하더라도 제약 요건이 아님.
- 적절한 투자규모
 - 러시아는 기후조건과 토지규모상 일정한 액수의 전면적 투자가 필

요하며 소규모 자금의 투입은 불가.

- 최소규모는 1,500ha, 투자액 120만 달러로 추정

- 농기계의 적절한 구성과 필요한 최소 인원만의 고용
- 한국식의 집약적 농업방식은 실패할 가능성 높음.
- 수직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질의 특성과 봄이 늦고 겨울 강설이 빠른 기후적 특성을 감안해야 함.
- 러시아 연해주의 농산물시장이 협소함을 감안해야 함.

2) 고려인의 러시아 농업경영

- 하바로프스크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농사보다는 도시에 나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자신과 같이 농사짓는 고려인들은 조합농이나 기업농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농장을 경영하고 있음.
- 하바로프스크 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고려인 수는 4-5호 정도로, 영농활동은 소규모이지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고 있으며, 주된 생산물은 채소와 화훼의 종묘임.
- 영농 활동을 하는 고려인들은 연간 3만 달러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에 속함.
 - 그들의 고소득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다차’ 문화가 있음.
 - 도시가구의 2/3가 다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묘종 수요가 매우 적지만, 모두 합치면 그 수요는 매우 많음.
 - 다차 이외에도 간혹 집단농장에서도 묘종 공급을 타진해오는 경우도 있음.

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정책과 한불거 협력에 관한 대담

(러시아 이르쿠츠크 국립대 정치학과 Alexey Peterov 교수)

1) 우리측 주요 토론 및 질문 내용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프로그램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1998 시베리아 연방 프로그램
 - 2002 시베리아의 경제개발 전략
 - 2005 시베리아 전략: 사회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민관협력
 - 2009 극동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개발 전략 2025
 - 2010 시베리아의 사회경제개발전략
- 이들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은 다음과 같음.
 - 대부분의 계획들이 이미 소비에트 연방 시대의 5개년 계획 등에 이미 나왔던 내용임.
 - 통계자료를 보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함.
- 최근 푸틴 대통령은 주변국의 관심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강조함. 여기에서 ‘실질적인 투자 유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계획의 구체화를 의미함. 그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함.
 - 첫째, 산업 자원개발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법령
 - 둘째, 철도,도로,통신,물자유통 등 정보물류 인프라의 건설 등
- 이와 관련된 질문
 - 전략과 개발계획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법령과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구축되어 있는가? - 특히 시베리아, 극동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 특히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지역의 정보,물류 인프라 개선은 러시아 정부가 해야할 몫임. 이들 계획은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가?
 - 최근 러시아, 북한, 한국까지 가스관을 건설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떠올랐음. 이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이며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Alexey Peterov 교수의 설명과 수집 자료

(1) 설명

- 시베리아는 한반도와 거리가 가까우나, 문제는 마음의 거리임. 한국 국민은 석유매장량 세계 2위, 천연가스 매장량 1위, 금 매장량 2위인 시베리아를 지리성 거리보다 멀리 느끼고 있음.
- 시베리아의 당면 문제도 있음.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의 자원 수출로 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충당하고 있으나 주민의 소득은 모스크바에 비해 크게 떨어짐. 전문인력을 비롯해 인구유출 문제와 인구감소도 시베리아가 해결해야할 문제임.
- 중국자본의 시베리아 진출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비밀투자나 불법투자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한국의 시베리아 진출 방식에 관해서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삼각협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특히 러시아, 한국, 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농업협력의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의 토지, 남한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의 결합.

(2) 자료

(Полит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отношении Сибири, 번역)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시베리아는 극동과 더불어 러시아 전체 영토의 2/3(71%)를 차지한다.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시베리아의 개방은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화 과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시베리아 전체 면적의 약 10% 정도(1,310만km²)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3 인/1km²)에 속한다. 영토의 대부분이 우랄, 알타이, 사얀과 같은 산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강줄기는 북극해로 이어진다.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민족은 주로 몽골 또는 투르크 족과 같은 유목민이며 부랴트 인, 투바 인, 야쿠트 인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르마르크의 시베리아 탐험과 새로운 영토 개척으로 17세기에 러시아는 이미 세계 대국이 되었다. 당시 시베리아 개척은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시베리아

에는 농노제라든가 높은 세금징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20세기에 걸쳐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건설 후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주정책을 시행하였다. 스톨리핀 개혁으로 3백만 명 이상의 인구가 시베리아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앞선 40년 보다 1.5배 많은 수치였다. 러시아 황실의 이와 같은 정책의 결과로 시베리아에서는 콜차크의 반혁명 활동, 게릴라전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후 1917년 정권을 장악한 새로운 러시아 정부는 정권에 불응하는 시민들을 가두는 수용소를 시베리아에 대거 구축하였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소비에트 프로젝트가 시베리아에서 실행되는데 콤소몰 건축(Komsomol constructions)과 바이칼아무르철도(이하 BAM)이다. 동 시기에 다수의 기업체와 도시가 건설되었으며 대표적 도시 중 하나가 이르쿠츠크주이다. 아울러 브랏츠크, 앙가르스크, 젤레즈노고르스크-일림스키, 우스티-일림스키, 쉘레호프, 사얀스크 등이 있다. 이들 지역과 인접한 곳인 노릴스크(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노보쿠즈네츠크(케메로보 주), 세베로바이칼스크(부랴티아 공화국) 등도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 시베리아 개발프로그램들이 이들 지역 개발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내 정치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하였고 어디서, 언제, 무엇을 개발시킬지를 결정하는 중심축이 하루 만에 무너졌다. 신생독립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러시아의 지방 도시들은 방치되었다. 부유한 지역은 국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며 자체적인 발전을 해온 반면 빈난한 지역의 경우 연방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시베리아는 100년 전과 같이 러시아의 보물창고이다. 러시아 내 주석과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약 100%, 가스 - 87%, 석탄 - 78%, 석유생산량 - 76%, 해산물 - 65%, 비철금속 및 철금속 대부분이 시베리아에서 생산된다. 블라디슬라프 이노젠펜프는 ‘대 시베리아’가 러시아 전체 수출 수익의 62%, 즉 2011년 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서술한 바 있다. 참고로 이노젠펜프가 언급한 ‘대 시베리아’에는 튜멘주를 비롯한 시베리아 및 극동 연방관구가 포함된다¹⁾.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연자원은 러시아의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0-2008년 동안 러시아의 연간 GDP 성장률은 평균 7%를 기록하였다. 이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잠시 주춤거렸으나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따른 수익이 러시아 연방 재정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러시아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한 시베리아가 연방재정의 절반을 메꾸고 있는 것이다. 시베리아의 인구수는 감소추

1) Иноземцев В. Поруганная часть России. Сибири нужна не госкорпорация, а деколонизация.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2012. 2 мая. URL: <http://www.mk.ru/politics/article/2012/05/01/699081-porugannaya-chast-rossii.html>

세를 보이고 있다. 시베리아 내 산업발전지역에서 자연감소 인구수는 안정적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나 알타이 공화국, 부랴티아 공화국, 티바 공화국 같은 전통적으로 인구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변동을 겪고 있다. 2002-2010년 동안 시베리아 연방관구 지역의 인구는 총 80만 7천명 감소하였는데 이중 도시인구가 41만 6천명(3%), 농촌인구-39만 1천명(7%) 줄어들었다. 아울러 도시인구 비중은 72%, 농촌인구 비중이 28%이다. 시베리아의 인구는 도시 356곳과 농촌 11,464곳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케메로보 주로 29인/km²이다. 노보시비르스크 주와 옴스크 주 그리고 알타이 지방의 인구밀도는 이보다 2배가량 낮다. 나머지 지역의 인구밀도는 9인/km²(하카시아 공화국)부터 1인/km²(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까지 다양하다. 시베리아 인구의 대부분(1,300만 명 또는 68.1%)이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케메로보 주, 노보시비르스크 주, 이르쿠츠크 주, 알타이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2002년 인구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시베리아 관구 9개 지역의 인구수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알타이 지방(7.2%), 이르쿠츠크 주(5.9%), 노보시비르스크 주(1%) 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알타이 공화국(1.6%), 티바 공화국(0.8%) 그리고 톰스크 주(0.1%)가 유일하다²⁾. 이외에도 해당 기간 동안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투자가 2.4배 감소하였고 주택 건설 규모 역시 45% 줄어들었다.

시베리아의 사회경제적 지표는 러시아 전체 평균치보다 낮다. 시베리아의 경제개발지표를 비롯한 주민 삶의 수준, 출생률, 실업률 등이 평균미달이다. 시베리아에는 실제 역공업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원자재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95-2003년 간 시베리아 연방관구의 러시아 내 GDP 비중은 15%에서 10.93%까지 줄어들었다. 시베리아는 인구유출이 심화되면서 천연 자원은 풍족한 반면 노동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관성적 개발 방안이 실행된다면 2020년에는 시베리아의 인구가 1,800만 명 이하(현재 1,990만 명)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06년, 시베리아 대통령 전권대표 크바시닌은 시베리아 개발 연방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베리아의 경제성장, 투자유치 그리고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여건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³⁾.

최근 러시아 정부는 자국 발전을 위한 주요 지역으로서 시베리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베리아 개발 전략과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예정이다. 앞서 실행된 프로그램들은 실제 성공적이지 못했다. 1998년 12

2) В России и Сибири уменьшилось население.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МК-Спутник. 2012. 6 и юл. URL: <http://sputnik-n.ru/nashi-novosti/v-rossii-i-sibiri-umenshilos-naselenie/>

3) Анатолий Квашнин: федер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ибири необходима не только для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но и для России в целом.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2006. 30 март. URL: <http://www.sibfo.ru/news/press-release.php?action=art&nart=2568>

월 19일에 ‘시베리아’ 연방프로그램(러시아정부 법령 No.1510)이 채택되었으나 1999년 동 프로그램의 실행에 투입된 자금은 전혀 없었다. 2000년에 2,420만 루블⁴⁾이 투자되는 등 뒤늦게 서야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2001년에 동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투자비용은 1억 4,450만 루블이었고 연방정부가 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한 금액은 4억 루블이었다.

2000년 11월, 당시 푸틴 대통령이 시베리아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2001년 5월에 시베리아의 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첫 번째 개발안을 마련하였다. 2001년 11월 당시 드라첵스키 전 권대표가 해당 문서를 검토 중인 러시아 경제개발부와 원칙적인 견해차이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그는 관료들이 시베리아의 특수한 기후조건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관련 전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결국 해당 문건은 채택되었고 2002년 6월7일에 러시아 정부 법령 No765-p에 의해 ‘시베리아의 경제개발 전략’이 승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동 문건에 대하여 전략내용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시베리아 연방관구 의회와 ‘시베리아 협정’ 지역 협회에서는 동 전략의 실행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다⁵⁾. 2005년에 시베리아 연방관구의 최고경제위원회가 ‘시베리아 전략: 사회적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민관협력’이라는 문건을 승인하였다. 동 문건 참여자들은 시베리아의 미래는 시베리아의 자원개발방향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시베리아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비효율적인 관리⁶⁾를 꼽았으나 연방정부는 이를 묵살하였다. 시베리아 연방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사라진 이후 다음 임기의 주지사가 새로이 임명되었다. 폴레자예브(옴스크 주), 크레스(톰스크 주), 툴레예프(케베로보 주) 등이 해당 지역을 2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관리를 했거나 또는 할 예정이다.

이후 제시된 개발문건들은 대상 기간이 2020-2025년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장기적이다. 관련 문건으로는 ‘극동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개발 전략 2025’가 있으며 2009년 12월 29일 러시아 정부 법령 No2094-p에 의해 승인되었다. 아울러 ‘시베리아의 사회경제개발 전략 2020’은 2010년 7월 5일 러시아 정부 법령 No1120-p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규모, 기간 등의 측면에서 각기 장단점이 있다. 즉 동 전략이 국토의 복합적인 개발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일부 조항의 경우 2년 내지 3년 사이에 경제상황의 변화라든가 지역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⁷⁾.

4) Сибирь сформулировала свои желания.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02. URL: <http://www.rg.ru/bussines/territ/489.shtm>

5)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ибири будет пересмотрена.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ртал www.buryatia.org. URL: <http://www.buryatia.org/modules.php?name=News&file=article&sid=5579>

6) Власти призывают бизнес.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Эксперт-Сибирь. 2005. 28 нояб. №45. URL: http://expert.ru/siberia/2005/45/sobutie_405/

‘극동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개발 전략 2025’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이 경쟁 우위가 없다는 점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교통문제, 러시아 중앙지역과의 경제 및 인프라 고립, 고비용, 극동 북극 또는 북부지역으로의 화물수송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계절변화가 이들 지역의 화물수송에 미치는 영향 등. 동시에 시베리아, 극동지역에는 경쟁 우위가 존재 한다: 아태지역에서의 경제 지리적 입지(우선적으로 가장 단거리인 동-서 운송로가 있음), 방대한 양의 지하자원, 사회경제협력 확대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광대한 해안선과 국경

시베리아는 질적으로 새로운 개발 전략을 택해야한다. 즉 전기 에너지 부문에의 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 축소, 기술적인 애로 사항 제거, 전력망 산업 개발, 새로운 발전소 건설, 전력 공급 잠재력 혁신, 생산비용 감축 및 전력 손실 축소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 인프라 개발 투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통접근성 향상, BAM과 TSR의 처리용량 증대, 교통물류 서비스의 질적 향상, 국제교통물류시스템으로의 편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 전략에서 제시되고 있는 투자 부문은 다음과 같다: 사회 인프라 현대화,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주택부문, 광범위한 기술 쇄신 및 생산 현대화, 새로운 경제 섹터 개발을 통한 원자재 가공 기술 향상과 동 지역의 지리적 이점과 부존자원 등의 경쟁우위를 최대한 활용, 경제 연구소 발전, 투자 및 기업 리스크와 행정 장벽 축소, 민관협력 확대, 우주, 항공, 헬기, 조선 부문에서의 혁신적 기업 성장 장려,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역 혁신 생산거점과 테크노파크 조성, 교육 및 학술 거점 구축으로 아이디어-기술-상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및 기술 연구 촉진

시베리아는 자원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새로운 매장지를 개발하되 난개발을 자제하고 다음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유럽식의 개발방안을 도입하고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로써 지역 자원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시베리아에 조성할 수 있다.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 보다 심화된 가공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원 개발에 따른 비용을 낮추어 러시아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외국인 기업의 경우 미국, 유럽연합, 일본, 한국과 같이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중국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이 실행된다면 시베리아는 첨단기술산업의 중심지로서 또 러시아의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는 지역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대체에너지, 유기농업, 관광 클러스터 부문 역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바이칼 전 지역과 알타

7) Елохина Ю.В., Олейников И.В. Байкальская Сибирь в полити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урсы и возможности // Известия Ирку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Политология. Религиоведение». 2012. №1 (8). С.68.

이, 티바, 야쿠티아의 방대한 영토를 특별자연보존구역으로 공표하고 이들 지역에서 행해지는 각기의 산업 활동을 금지해야할 것이다.

‘시베리아의 사회경제개발 전략 2020’은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 문건은 2016년까지 연간 지역총생산 5~5.3% 성장, 투자-9~12% 확대, 임금 및 인구 1인당 소득-5.1~5.5% 성장 달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2010-2020년 간 이르쿠츠크 주의 주요개발전략의 우선과제가 제조업의 복합발전, 투자 유치, 관광 레크리에이션 잠재력 실현 등이다. 이르쿠츠크 주 북부의 니즈니 프리앙가리에 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면 철강 및 금속완제품, 생필품, 가스석유가공, 가스화학, 철광석을 비롯한 홍비(紅砒)니켈광, 금 등의 유용광물채굴, 벌목업, 목재가공 등의 부문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 현대화를 비롯한 전력 및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생산 보장, 교통인프라 개발 등이 필요하다⁸⁾.

이르쿠츠크 주에는 ‘첨단기술 재료 기반의 산업 테크노파크 구축’ 프로젝트가 실행될 계획이며 혁신 국토-생산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바이칼 관광-레크리에이션 단지 구축으로 요양, 문화인지, 탐험, 비즈니스, 민족학, 종교, 생태계 등 다양한 테마의 관광을 체험할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2021년까지 2008년 대비 시베리아의 지역총생산은 1.6배 증가, 산업생산-1.45~1.55배, 투자-2.3배, 임금 및 1인당 소득-1.8배 증가할 것이다. 또한 시베리아의 지역총생산 중 투자비중은 30% 이상 차지, 인구수는 60만 내지 80만 가량 증가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두 개의 시베리아 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원개발을 계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과 아시아 간 통과화물수송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원개발만 있고 첨단기술산업 혹은 관광,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없는 지역은 새천년의 미래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통과수송로의 경우 해상노선이 그 기능을 전담해왔으며 도시국가를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도 이렇다 할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⁹⁾.

2012년까지 시베리아와 관련한 내용은 이따금씩 정치 성명서에서 언급되곤 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러시아연방의회에 전달된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시베리아’에 대해서는 3번 정도 언급되었다. 그 중 2004년 당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석유 공급 다변화를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서 언급할 계획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즉 발트지역 파이프라인 시스

8)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ибири до 2020 года.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Сибир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URL: <http://www.sibfo.ru/strategia/strdoc.php>

9) Иноземцев В. Поруганная часть России. Сибири нужна не госкорпорация, а деколонизация // Московский комсомолец. 2012. 2 мая. URL: <http://www.mk.ru/politics/article/2012/05/01/699081-porugannaya-chast-rossii.html>

템의 처리능력 확대, 서시베리아-바렌쯔해 송유관 가동, 동 시베리아 자원매장지의 수송로 확정...러시아에 있어서 도로의 현대화는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서 도로는 국가의 주요경제거점과의 통합 뿐만 아니라 통과수송로 역할 역시 수행하는 것이다. 도로 간선망은 전 유럽 도로망과 연계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TSR운송로를 따라 극동지역 도로망과 유럽지역 도로망을 이어주어야 한다¹⁰⁾.” 2005년에는 시베리아 동부지역의 에너지 공급과 신 자원매장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및 타이미르 자치구, 예벤키 자치구의 통합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다¹¹⁾. 지역 간 통합 문제는 푸틴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크게 부각되었다. 5개의 성공적인 지역 간 통합 프로젝트 중 4개의 프로젝트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이루어졌다. 2005년에 타이미르 자치구와 예벤키 자치구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으로 편입되었고 코랴크 자치구와 캄차카 주는 캄차카 지방으로 통합되었다. 2006년에는 우스티 오르딘스키 부랴트 자치구가 이르쿠츠크 주로 편입되었다. 이어 2007년, 치타 주가 아긴스키 부랴트 자치구와 함께 자바이칼스키 지방으로 통합되었다. 지역 통합의 결과는 모순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아직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새로이 탄생한 지역을 관리하는 인력인데 일부 지방 엘리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예: 부랴트 엘리트의 우스티 오르딘스키 부랴트 자치구의 이르쿠츠크 주 편입을 반대하는 성명서 제출). 또한 일련의 프로젝트들이 많은 갈등 요소를 잠재하고 있는 만큼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었다.

2007년 당시 푸틴 대통령이 국가의 잠재력 실현이 저조하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는 방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잠재력을 20%가량 이용하고 있다. 동시에 다른 선진국들은 자국의 잠재력을 70-80%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우선적으로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로 우수한 연방고속도로 건설과 남북 또는 중앙우랄지역과 유럽 러시아지역을 연계하는 국제운송로의 도로 개보수를 꼽을 수 있다. 아울러 극동과 시베리아의 경제 잠재력 실현을 위한 도로의 개보수도 필요하다¹²⁾.” 1990년대 말 부터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 지역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 포럼을 수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 있다.

그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포럼으로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을 꼽을 수 있는데 2004년부터 개최되었다. 만약 제1차 포럼이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의 사회경제개발 중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었다면 2007년 제4차 포럼은 러시아 전

10) Послание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2004. 26 мая. URL: <http://archive.kremlin.ru/text/appears/2004/05/71501.shtml>

11)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05. 25 апр. URL: <http://www.rg.ru/2005/04/25/poslanie-text.html>

12) Послание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Г. 2007. 27 апр. URL: <http://www.rg.ru/2007/04/27/poslanie.html>

체의 산업개발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제5차 포럼에서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메드베데프가 자신의 경제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제9회 크라스노야르스크 경제포럼 ‘전략 구상의 시간’(2012)은 러시아의 혁신부문 개발을 위해 가장 의미 있는 회의였던 것으로 기록되었다¹³⁾. 동 포럼의 주최기관 중 하나가 바로 러시아 정부이다.

러시아 연방의회는 바이칼경제포럼을 주최하고 있다. 바이칼경제포럼은 2000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연방 의회는 바이칼경제포럼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CIS 경제포럼의 기초를 이어받기를 원했다. CIS 경제포럼은 1996년에 개최된 이래 CIS국가들 간 경제적 정치적 연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이칼경제포럼은 탄생 이후 런던의 국제경제포럼 <러시아-2001>, 페테르부르크경제포럼 등과 같은 러시아와 해외 유수의 포럼 등 국내외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2011년 당시 푸틴 총리의 환영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동 지역에서의 선행과제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생산 현대화, 교통을 비롯한 통신망, 에너지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자원 개발, 아태지역과의 비즈니스 및 인문학적 교류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실행이다¹⁴⁾.”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는 극동국제경제포럼을 주최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부터 하바롭스크에서 개최되고 있다. 동 포럼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러시아 동부 지역을 단일 경제권으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아태지역 및 국제시장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¹⁵⁾. 극동국제경제포럼의 효과는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동 포럼은 매회 수십 가지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쏟아내었지만 이들 내용은 곧 묻혀버렸다. 동류의 포럼 중 하나에서 러시아 부총리 홀로포닌이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독특한 점은 정부자본과 민간자본 비율이 1:7이라는 점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1:2이다¹⁶⁾.”

2012년 봄, 국영언론매체들을 비롯한 민간언론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동시베리아 및 극동개발 공사’의 설립 가능성을 주요 기사 내용으로 다루었다¹⁷⁾. 앞서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과 푸틴 전 총리가 2011년 11월에 해당 공사 설립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1월에는 당시 비상사태부 장관이었던 세르게이 쇼이구가 공사 설립안을 들고 나섰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13)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стал лидером по инновацио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сред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официальный портал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2012. 13 март. URL: <http://www.krskstate.ru/forum/events/0/news/65108>

14) Прямая речь.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Сайт т Бай каль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URL: <http://www.baikalforum.ru/asp/qa.aspx?noparma=ziwk&Gid=645>

15)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URL: http://www.dvforum.ru/2005/inf_letter.htm

16)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ибири до 2020 год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аправление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821 млрд. рублей.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Regnum.ru. 2006. 30 март. URL: <http://www.regnum.ru/news/615488.html>

17)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развитии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оект.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Агентство политических новостей. 2012. 4 мая. URL: <http://www.apn.ru/publications/article26477.htm>

동시베리아 및 극동개발 공사는 블라디보스톡에 본사를 두게 될 예정이다. 동사의 주요 과제는 시베리아와 극동의 국토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다. 동 공사의 활동영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현재의 광물, 목재, 토지, 도시건설, 노동활동 및 시민권에 대한 연방법령과 일부 차별화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공사는 투자 계획에 필요한 지역의 광물 및 목재 개발권 등을 현행법에서 제시하는 입찰과정을 거치지 않고 획득할 수 있다. 향후에 이러한 개발 면허들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수권자본금에 포함될 수 있다. 새로운 공사는 수익에 대한 세금의 감면과 의무적인 사회보험과 관련한 특혜를 받게 된다. 관련 문건에서는 연방과 지방기관들은 공사의 활동에 관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직 의회만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국적의 시민이 일정기간 동안 시베리아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이주비용뿐만 아니라 주거비부터 식비까지 보장을 해준다. 또한 기본임금 외에도 특별 시베리아 지원금과 물질적 지원 등이 따르게 된다. 특히 러시아에 거주하는 CIS국가의 이민자들이 시베리아지역으로 이주를 할 경우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 시베리아로 이주를 결정한 외국인에게는 주거지가 제공되는 한편 러시아 시민권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베리아에 모든 것이 있다!’-해당 구호는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에 답하듯 재빨리 등장하게 될 것이다¹⁸⁾.

관련 전문가들은 25년간 운영될 새로운 공사를 국가속의 국가 또는 극동공화국으로 칭했다. 알렉세이 쿠드린 전 재무장관은 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다¹⁹⁾. 그는 올림프스트로이(Olympstroy)와 같은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공사가 설립된다면 국가 내 투자환경이 나빠지고 극동 자바이칼 지역의 개발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⁰⁾.

자바이칼스키 지방의 상원의원인 잠발님부예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사 설립안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극동지역의 발전이 그만큼 저조하기 때문이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간 극동 자바이칼 개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1조 루블 이상 투자되었으나 동지역의 개발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낮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만약 공사 설립 안이 실현된다면 시베리아의 금융관리방안으로 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의 특혜는 필요하고 이러한 특혜 없이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²¹⁾.” 현재 공사 설립과 관련한 입법안은 논의 중에 있다.

18) Сибирский вызов царя Путина: «Я вновь заселю эти земл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La Repubblica. 2012. 25 апр. URL: <http://www.inosmi.ru/politic/20120425/191145254.html>

19)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URL: <http://top.rbc.ru/politics/20/04/2012/647261.shtml>

20) Кудрин раскритиковал проект госкорпорации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Лента.ру. 2012. 24 апр. URL: <http://lenta.ru/news/2012/04/24/project1/>

21) Модернизация или неокOLONIALИзм? - Парламентарии о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Regions.ru. 2012. 3 мая. URL: <http://regions.ru/news/2406247/>

러시아 석유수출량의 3/4이 유럽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으나 동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 러시아와 중국은 ‘동 시베리아 - 태평양’ 송유관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동 송유관의 일간 처리능력은 600,000 배럴이다. 동 아시아지역(동 시베리아와 사할린의 석유 매장량 조사 및 중앙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매장량 조사)과의 에너지 협력은 러시아에 있어서 중요하다. 중국과 기타 동 아시아 지역에서 유유향물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와 이들 지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2009년에 체결된 ‘러시아 극동, 동 시베리아 및 중국 동북지역 간 협력 프로그램(2009-2018)’을 들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첫째, 교통 프로젝트: 각기 노선에서의 항공 직항로 개설, 철도 연계, 도로 정기 여객 운송, 둘째, 관광을 비롯한 인문학, 생태계, 공동 학문기술단지 조성 등이다. 이외에도 동 프로그램 하에 러시아 전문가들의 지원으로 중국 내 첨단산업체를 비롯한 100여개 이상의 대기업이 설립될 예정이다²²⁾.

2012년 5월, 세르게이 쇼이구가 러시아의 수도를 시베리아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브찌옴은 시베리아와 극동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도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스크바 시민의 1/3가량이 수도 이전에 찬성하였고²³⁾ 적합한 도시로는 크라스노야르스크(26%), 하바롭스크(24%), 블라디보스톡(18%), 이르쿠츠크(16%) 순으로 나타났다. 고위 관리가 이처럼 수도 천도를 제안한 사례는 이보다 앞서 있었다. 2010년에 크바시닌 당시 러시아 전권대표가 노보시비르스크를 수도로 제안한 바 있다. 시베리아로의 수도 이전은 동 지역의 인구 난을 해소하는 좋은 방안이 될 뿐 더러 군사전략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한 예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수도이전사례를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에서 북부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정학적인 모티브에 의해 아스타나로 수도를 이전한 바 있다.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가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되 고르게 분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에게는 제2의 지정학적 거점이 필요하며 이는 유럽 러시아 지역이 아닌 바로 이곳 시베리아에 있어야한다. 동-서 시베리아와 우랄, 극동지역에 추가적으로 4개의 지정학적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우리에게 제2의 스톨리핀 개혁이 필요하며 이 곳 러시아 동부지역에 모든 필요한 자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러시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인적자원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유럽 러시아 지역으로 끌어가는 멕시코 만류를 중단시켜야 한다²⁴⁾.”

22) Виктор Ишаев возглавил рабочую группу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с Китаем.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1. 11 мая. URL: <http://www.rg.ru/2011/05/11/reg-dvostok/ishaev-anons.html>

23) Идея переноса столицы в Сибирь воспринята россиянами неоднозначно.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портал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amic.ru. URL: <http://www.amic.ru/news/177793>

24) Сила в Сибири.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Взгляд. 2012. 9 февр. URL: <http://vz.ru/politics/2012/2/9/560139.html>

시베리아 개발 문제는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관리를 받아왔다. 메드베데프의 정권 하에 극동개발부가 등장하였고 이샤예프가 극동개발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메드베데프는 총리로 임명 될 당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시베리아와 극동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 주민 삶의 수준을 유럽 러시아 지역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극동과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했던 이전의 연구소들 모두가 예전처럼 작업을 하진 않는다. 이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지 투자금을 높게 책정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중요시해야 한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이 러시아와 분리되어서도 안 되며 러시아 국민이 극동지역과 러시아는 다르다고 말하는 일도 없어야한다.” 2012년 8월 초에 메드베데프 총리는 철도를 이용하여 시베리아 여러 도시를 순회하였다. 당시 그는 시베리아와 극동의 발전은 정부의 주요한 우선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극동 시베리아 개발이 정부의 우선과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곳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에 시베리아가 우리의 중심이자 개발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²⁵⁾.” 시베리아 지역의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바이칼스키 지방의 게니아툴린 주지사는 극동개발부의 등장과 함께 자바이칼스키 지방 개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콤마 다음에 ‘그리고 자바이칼리야’를 쓰는 것을 잊은 듯하다²⁶⁾.”

끝으로, 지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지리적 그리고 기후적 특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시베리아는 러시아에 있어서 항상 큰 전략적 의미가 있다. 우선, 러시아는 예로부터의 침략 노선 중 하나인 유라시아 스텝지대로부터의 자체적인 완충지대로서 시베리아를 이용해왔다. 즉 오래전부터 서부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전략적 보루가 되어왔다. 최근 들어서 국가의 지도자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은: “정부가 시베리아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다.-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임기동안 많은 공약들이 나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치가와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시베리아 개발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계획들이 이미 소련의 5개년 계획이라든가 1960-70년대에 이미 나왔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자료를 통하여 시베리아지역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청년들은 러시아 중앙지역으로 계속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시베리아의 가치는 방대한 자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시베리아는 아태지역과 연계를 강화하고 이들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

25) Д.Медведев: Необходимо приблизить стандарты жизни в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к европейским.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 ИА Город новостей. 2012. 5 авг. URL: <http://www.city-n.ru/view/303407.html>

26) Сибирский приказ по-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URL: <http://expert.ru/2012/07/6/sibirskij-prikaz-po-dalnevostochnomu/?n=171>

지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한 사안들은 2012년 가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APEC정상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시베리아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시베리아 지역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현재까지 시베리아 지역 출신의 러시아 지도자는 1984-1985년 소련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중앙위원회의 총 서기장이었던 체르넨코가 유일하다.

시베리아의 경제개발과정과 자원의 저주에 대해 말하자면 시베리아 지역민들의 높은 인내심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시베리아에는 분리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 러시아와 소련의 역사상 러시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 분리되는 사례는 없었다(시베리아의 러시아인 비중 84%). 분리주의는 빈곤한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시베리아 지역이 부유해질수록 연방권력에 불만을 가지는 원인이 줄어 들 것이다. 또한 시베리아 지역이 정치적 주체가 될 가능성은 낮다. 이들 지역의 주요 법령은 이미 오랜 전부터 러시아 헌법에 부합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의 어떤 지역도 러시아의 구성원에서 벗어나고자 한 적이 없다. 황화(Yellow Peril)에 대한 모든 논의는 더 이상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니다.

라. 구소련 개혁 시 국유재산, 농장의 사유화 과정

(Nikolay Lee, 이르쿠츠크 고려인 협회장 면담)

1) 당시 농장 사유화 논의

- 체제전환기의 토지개혁은 토지소유에 있어 정부독점을 해체하고 사적 소유를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음.
-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원소유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토지개혁이 불가능하다. 즉, 농지의 반환이나 보상과정이 생략됨.
- 따라서 농지는 구성원에게 분배하거나 새로 창업할 예정으로 있는 영농후계자와 이주자를 위해 일부를 남겨 놓거나, 집단농장은 농지의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으며 투자자본 마련을 위해 저당할 수도 있었음.
- 개혁 초기 러시아 농업의 사유화와 구조개편은 지연되리라고 예견되었음.

- 가장 커다란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인 관료조직의 명령만을 따라 온 집단조직이 자율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 또한 실제로 러시아의 국영농장과 집단농장은 사회주의 혁명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대농장의 경영형태가 내용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그 형태만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과정이라 하여 집단적 형태의 농업경영구조가 쉽게 개편될 수는 없다는 점
- 따라서 전환기에 처한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집단적 사회체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급격히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 이러한 초기의 논의과정에서 농장의 사유화와 농장경영구조개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었음. 우선 사유화의 원칙은 다음과 같았음.
- 집단농장의 운명은 집단농장의 구성원 스스로 결정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토론을 한다.
 - 집단농장 내에 존재하게 되거나 분리되는 개별조직체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한다.
 - 집단농장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젊은 후계자, 어린이, 은퇴농민과 영외로부터의 이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소유 및 경영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농업시설, 사회생활시설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농장 경영형태의 개편에 대한 구상도 제시되었다.
- 생산협동조합(production cooperatives)으로 개편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무와 원칙 하에서 경영된다. 첫째, 조합의 활동에 대한 참여의 의무. 둘째, 회원재산의 결합적 이용. 셋째, 1인1표의 원칙. 넷째, 조합원의 복지증진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 등이다.
 - 집단농장이 완전히 해체되어 개별농장으로 개편하는 방법이 있다. 이들간에는 생산기술의 교류, 농산물 가공, 간접자본 시설의 공동

이용 등에 있어서 조합형태의 협력관계가 유지된다.

- 서로 독립적인 중소규모 농장으로의 개편이 있다. 시설 및 대농기계 등을 과거의 집단농장에 남겨두고 이를 각 농장이 임차하여 이용하거나, 혹은 모든 생산수단을 각 농장의 소유로 하되 이들간에 상호 계약관계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2) 농지사유화

○ 러시아의 사유화는 토지관련 법령의 제정과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 토지에 관한 법령으로는 1990년에 「러시아연방 토지에 관한 명령」
- 동년 11월에 「개인농 경영에 관한 법률」
- 1991년과 1993년에 두 차례에 걸쳐 「토지법」을 개정
-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러시아 민법 제13장 및 제17장의 토지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소유권 및 사유화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
- 1997년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와 자유로운 처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토지법」 개정

○ 러시아의 토지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소유권」과 「이용권」으로 구분되고 있다.

-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지정되어 있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대할 수 있는 권리임.

○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개인 또는 법인은 토지의 이용권만을 지니고 있는 상태이다.

- 「이용권」은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에 해당되고 있는 권리의 상당부분을 내포하고 있어 소유권은 협동조합, 농기업, 가족농, 개인 등에게 이양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러시아 농지의 사유화 방식은 집단농장의 개편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집단농장의 개편은 농장의 토지와 자산에 대해서 농장구성원에게 지분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 농장에서 개인에 대한 토지의 지분 분배방식
 - 농장 토지의 일부를 국유 토지기금에 편입
 - 농가구입경영지(텃밭) 혹은 주택부속지 등 「주민에게 양도하는 사적 개인소유지」와 집단적으로 이용되어 온 공유지를 구분
 - 공유지를 대상으로 각자의 지분을 결정함. 이때 각자의 토지지분은 노동공헌도나 이력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주어짐.
- 토지를 제외한 농장자산의 지분 분배
 - 집단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고정 및 유동 자산은 농촌위원회(지방자치제) 혹은 국가 등으로 이관되는 자산 및 부담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지분으로 분배
 - 토지 및 자산지분에 대해서 피분배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농장위원회에 신청하고, 자신의 소유지분의 이용형태로서 다음 중 하나의 형태를 선택함.
 - ① 개별농 혹은 농민기업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 및 생산수단의 지분을 농장으로부터 양도받음.
 - ② 집단농장의 후속 경영체로서 협동조합 혹은 주식회사에 지분을 출자함.
 - ③ 자신의 지분을 농장 혹은 농장구성원에게 매각함.

3) 기타 국유기업의 사유화

- 정부가 ‘바우처’를 발행하여 소속 지원과 국민들에게 분배함.
- 국영기업에 대한 바우처의 할당은 해당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후 이루어짐.
- 각 국영기업에서 바우처의 분배는 임직원 총회에서 결정
- 개인이 분배받은 바우처는 후에 국영기업 공개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로 사용됨.
- 대다수의 국민(일반 국민의 80% 이상 추정)이 바우처를 조기에 매각하여 공개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함.